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광역상수도 공급 통수식 개최



신안군은 매년 가뭄 발생 때마다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매화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완료하고, 4월 3일 압해읍 매화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통수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68, 지방비 72)이 소요되었으며, 압해읍 가름리에서 매화도까지 육상 12.4km, 해저 2.7km 총 15.1km

총사업비 240억...육상 12.4km 해저 2.7km 총 15.1km

3년 6개월만에 안정적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설치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2015년 3월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2019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식수 공급을 위한 시운전을 거쳐 4월 3일 통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매화도는 기존 마을상수원의 담수량이 적어 약간의 가뭄에도 식수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이었지만 이번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매화도 광역상수도 공급의 시작은

2027년 중부권 자은, 안좌, 팔금, 암태면과 장산면, 2030년 비금, 도초면까지, 흑산권을 제외한 신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압해 매화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압해읍과 매화도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을 통해 항구 적인 먹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외식업지부 선진지 견학...“외식업 선진화 도모”

함평군 보건소가 외식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식업지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타 지역의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벤치마킹 해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 지난 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 국수문화거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등을 견학했다.

또, 우수 외식업소를 방문해 상차림 방법, 고객 응대요령 등을 직접 체험하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견학이 영업주의 음식문화 개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모범음식점 16개소, 위생등급제 업소 32개소, 안심식당 81개소를 지정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 학산면농촌지도자회, 망월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영암군 학산면 농촌지도자회(회장 최준기)는 최근 회원 50여 명과 함께 학산면 망월천 주변에서 페비닐 수거 등 대대적인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산면 독천 망월천 주변의 페비닐 수거와 함께 주변 상가를 돌며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였으며, 환경정화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일상에서 지키는 환경'을 독려했다.

최준기 회장은 "학산면 농촌지도자회는 깨끗한 친환경 마을 만들기 위해 매년 농약병 병수거 활동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 수거를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학산면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불갑사 관광지 주변 상사화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영광군은 도시미관 향상과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 찾기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불갑사 관광지 주변에 상사화 캐릭터를 활용한 자율형 야광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설치 가능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율형 야광 건물번호판 설치의 지난 3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여 불갑사 관광지 주변 6개 리(불갑면 금계리, 모악리, 자비리, 방마리, 쌍운리, 안평리)의 도로명주소가 기부어원 477개 건물에 설치했으며, 상사화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주)투비와 낚시어선 승선자 지문인식 단말기 무상 보급 업무협약 체결

지문인식을 통한 실명 확인으로 비상시 승선자 정보 신속 파악

목포시는 (주)투비와 낚시어선 승선자 확인용 단말기 무상 보급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승선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양 기관이 공유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주)투비는 시에 등록된 낚시어선(70여척)에 대해 현장실명확인을 거친 후 단말기 설치·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전국의 낚시배 사고 접수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2,863건 중 낚시어선

사고는 280건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인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승선자 수와 승선자 명부 등 승선자 정보가 정확해야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문인식 방식을 통한 승선자 실명 확인 및 실시간 승선자 확인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낚시어선 승선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이장 역량 강화 직무교육 가져

이장 사기진작과 능력개발 그리고 주민화합의 장 마련

무안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2023년 이장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이달 4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무안군 이장협의회(회장 노재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직무교육은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군의원 등과 각 기관사회단체장, 그리고 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 2부 직무교육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은 43명의 이장이 표창을 받았으며, 2023년 이장협의회 집행부의 힘찬 포부를 담은 소개와 인사도 했다.

2부 직무교육은 이장 업무에 대한 지침 설명과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박찬영 교수의 "지방자치시대, 이장의 의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여 이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한껏 높여 이장님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산 군수는 축사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이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위한 봉사자로서의 동기 부여와 의욕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무안군의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결사 저지를 위해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